濟大新報

哲鍾 日 敎
文炳 金 文
編輯兼發行人 李文敎
主幹
編輯局長

發行所 濟大新報社
濟州市龍潭洞一八五
電話 438. 439

印刷部
社業工刷印州濟

除夜에 부쳐

김 영 환

이제는 죽음처럼 고요한 여기 뜰로 내려서 바라보면 문뜩 窓들은 짙은 색갈로 挑戰해 오는 不安. 다시 눈물지던 너의 눈속에 아슴히 젖은 傷痕을 어머니는 우리에게 孤獨한 意味를 말해 주었지. 그 悚感한 絶頂에서 당신이 없는 時間에 歡喜로 번지던 좁은 通路를 지나, 어쩌면 젊은 다리로 서서 그 싱싱한 가슴을 입마추고 있었지 입마추었지.

잎 떨어진 街路樹 길을 봄바람이 지나고 그리고 우리들의 이야기에 꽃이 핀 들녘을 언 가슴이 훈훈한 피로 채워져 平和로웠지 그러던 걸, 아! 너는 이상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고 저리로 林間에 살아나는 어진 마음의 歲月속, 밟고 선 땅의 오랜 祝福을 記憶하려하여 한줄기 슬픈 海潮音의 幻影을 찾기엔 차라리 당신의 끈끈한 사랑을 기다렸던 季節.

눈부신 여름 햇살의 鋪道를 지나 멀리서 웃음짓는 장미빛 所望을 우는가 울었는가. 내일이 되면 우리를 찾아 너는 수많은 窓口를 들여다 볼 것을 無限하고 어두운 담벽의 그늘에서 渴望하고 있었다. 바람은 정답게 불었던 六月 안으로만 자라던 우리의 想念은 그래서 太陽의 뜨거운 불길에 싸여 당신의 누망울을 바라보고 있었지 사랑하였지. 싸늘히 식어간 地熱에 당신의 차디찬 가슴을 그날은 根源으로 돌아가는 이웃들의 틈에서 너 없이 흐름속에 살아질 사람들의 모습을 얼마나 나의 마음에 속삭였는가 날 울렸는가.

外廓에선 차츰 풋내음의 野望을 보내고 있었는데 애써 蒼白한 당신의 입술을 바라보는 안타까움. 저녁 해는 커어튼 사이로 멀어져 있었다. 나는 이 분위기에 한마디 말도 몰라 그냥 앉아 있었지 당신을 바라보고 있었지 뜨겁게 안을 수는 없어, 우는 가슴으로 아, 우리는 情다운 목소리를 숨죽인 때문에 더러는 義로웠지 義로웠지 義로웠었지 저녁 그림자가 국화꽃 행렬로 이어짐을 기다림만 되는가.

내 혼자 약속한 장소로 만나려 가는 가을은 값싼 상처의 자욱은 言語의 烘笑로 버리고, 바람은 불었고 새들은 노래하여 구름아 별을 가리며 面紗로 잡아당겼지. 발을 더딜 때마다 발 마닥은 소리를 내여 마음 속에 자라고 처음 연 열매의 成熟을 그는 아직도 살아 있는가 죽어가고 있는가.

그 긴 잠자리는 숨가쁘게 펴져 나갔는데 午後의 유리창엔 싸늘한 비가 뿌렸던 겨울. 조그마한 외로운 마을의 벽에서 멸어지는 落日을 그렇게도 착한 얼굴로 바라보고 있었지 안타까웠지. 우리들은 모두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그때 우리는 수 없을지라도 후에 남을 착한 얼굴로 바라보고 있었지 안타까웠지.

이제는 죽음처럼 고요한 여기 뜰로 내려 바라보면 우리로부터 멀어지는 슬픈 期待들, 못다한 사랑들을 지금은 차거운 가슴에 香氣를 나누어 이렇게 기대 서서 푸근히 품어 안은 마음에 더러는 나와같이 溫和하였지 참으로 溫和하였지. 하늘이 땅위에 내려앉아 목을 놓아 울어도 깃발처럼 눈부신 노래를 흔들고 있는, 微動하는 몇개의 미련은 당신의 일김에서 우리는 더 가까이 포옹할 수 있었지, 포옹하였지 잃고 있는 나에게 지난 해는 인사를 하여. 〈國文科 四年〉

十二月二五日부터 冬期放學

各學生會에서 啓蒙活動推進

지난 二五日부터 六十四日 부터 十九日까지 學年末試驗을 一年五年 一月末까지 四十 學究의 「회나레」로 하고 六四年을 淸算한 余日間 冬期放學이 公 告되었다 그동안 착잡 과 불안등으로 緊張이 繼續되든 一年間의 생활을 마치고 이제 새 出發을 向하여 「캠퍼스」를 떠나 各種 設計들을 하게된다 지난 事및 봉사활동을 計劃하고 있으며 各學會에서도 학구활동을 為한 資料蒐集을 할것이라한다 法文學部 學生會에서는 개강활동및 盲아 學童들을 慰問할것이라며 理農學部 學生会에서는 各地方의 家畜珍療와 家畜管理등이 봉사활동을 하게된다고 하는데 具体的인 計劃은 알려지지않고있다 그리고 教育科學生會에서는 放學期間 各地方에서 文盲退治運動에 臨하는데 出身地方別로 班을 編成하고 文盲者 教育및 名勝地의 美化作業과 조기淸掃등 各地方 發展을 為한 啓蒙과 봉사활동을 하게된다고

各學部 學生會및 教育科 學生会에서는 放學期를 利用하여 本道의 各地方 鄕民을 為한行事및 봉사활동을 計劃하여 本道의 家蒙과 봉사활동을 하게

定決置設部學養敎

年後明 은轉移浦歸西科政家

新年度 本大學敎育方針의 一面인敎養學部는 西歸浦에 住居할 必要가 없게되었다 그리고 新年度부터 西歸浦로 移転하려든 家政科는 學生들이나 學父兄들도 대개 바라고 있는 바이지만 갑작스런 移転에 따른 實際的인 問題가 具備치못 하여 明後年부터 移転하게 된다고 한다 家政科 이전에 가장 難点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은 家政科 교수들이 이동강의에 많은 障害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明後年 移転에는 면밀한 計劃이 樹立되고 이러한 장애가 無히 解決될 것으로 보며 家政科 學生들이 西歸浦 移転을 바라고있는 反面에 가정과 교수들이 反對를 主張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明後年 移転에는 이러한 장애가 無히 解決되지고 있다

新入生 住居할 必要가 없게되었다 그리고 新年度부터 西歸浦로 移転하려든 家政科는 學生들이나 學父兄들도 대개 바라고 있는 바이지만 갑작스런 移転에 따른 實際的인 問題가 具備치못 하여 明後年부터 移転하게 된다고 한다 家政科 이전에 가장 難点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은 家政科 교수들이 이동강의에 많은 障害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明後年 移転에는 면밀한 計劃이 樹立되고 이러한 장애가 無히 解決될 것으로 보며 家政科 學生들이 西歸浦 移転을 바라고있는 反面에 가정과 교수들이 反對를 主張하고 있다는 점

아듀! 一九六四年

☆ 어느듯 한해가 다갔다. 년륜은 우리들에게 조용한 명상의 時間을 마련해준다. 너 ☆
☆ 도 나도 모두가 虛脫한 감회요 分明치 않은 아쉬움들이 엄습해올것이다. 그러나 이한 ☆
☆해에 못다한 일 이라고 버릴수도 없기에 시작되는 새해에 期待를 걸어본다. 그러길레 ☆
☆ 한해를 보내는정들을 여기 모은다. 백발과 홍안이 한해를 어떻게 보내었는가 敎授 學 ☆
☆ 生 最年長과 最年少를 對照해 보기로한다. ∧編輯者∨

白髮

白髮으로 後進指導를
白髮은 靜謐과 通하는길

敎授 吳 應 三

大學講壇에서 生活해 오는동안 나도몰래 백발이 서리었고 學內老祖의 「TOP」으로編輯者의 간택이있어 筆을 들게 되자 아쉬운 情도 적지않다.

이제 一九六四年과六五年의 境界線上에서 아쉬운대로 망각지여를 몇마디 記하여 協助의 責任을 모면할까한다.

一、容怒

七、八名의 철 不知한 食口들을 거느리고 一年 三百六拾六日을사노라면 說敎訓示도 해야하고 때로는 견책편달도하며 各가지 方法을 摸索 적용하고 때로는 망각의 섭理도크게 보람을 얻는 일도 있다. 그中에서도 第一 효과적인것은 투두백발의 処地에서 멀직이 내려앉아 이 사고들의 処地에서 생각을 해주는일이다. 지난六月에 한子息이 自轉車事故를 내고 百余日의 入院治療費를 배상해나가는데 老血이 上衝한 적도 한두번이 아니었으나 젊은 時節에 自身이 自轉車事故를 냈든것을 回想하면 분노심이 多少 沈靜되어 자식에게 過한 責望을하지않고도 지낼수가 있었다. 이것은 이연의 寡婦知寡婦와도같은 이야기지만 크게 용서를한 것 같기도하다. 그러나 이것은 내自身이願한 생각으로하면 자식에게 해 했든것을 자식에게 不過하고 純엇을 하라 아단을 대하겠다는 良心이 부끄러운 것인지 모르기때문이다.

너도 나도 있는 이 瞬間의 新出發로 되도록이면 明鏡止水의 心境이나 마련하고 가다가 過失 過誤나하고 (Gang Aft Agley) 하는 것이 우리의 노릇인가 하면 이 일지 三十余年 痛한 것인지 모르나 邯鄲十余星霜之夢이 權花一日之榮이 來日의 行路에 過誤를 저지르지 않게하는데 도움이 되는것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닌것이 아닐까 한다.

二、西歸分校와 길馬

幾水 建物其他施設이 一応 授業을 할수있을만큼 準備되었음에 따라 卯床 전床이며 各種見本 實驗實習機械를싣은 荷車가 몇차례 내왕을 했고 마지막으로 敎授團과 山을 넘어 待望의 安窓処 西歸分校로 들어갔다.

이제 몇토막글을 마輪은 까마득히 잊었음 치면서 一九六四년 이 해를 넘기게 되었다. 이 一九六四年 三十余年 痛 一日之感이 없을수없었다. 上은 新裝을한 理農學部의 조감적 전망이지마는 理農學部가 越山百里 漢拳를넘고 온 데는 特히 本園의産業 發展의 大局的 見地에서 充分한 考慮가있었고 天助自助의 섭리에 감응하는 文學長의 생각도 크게 도움이 되었든것이다. 郡邑民들의 反応 西歸邑의 발전과도 呼応하여 비약적 발전이 期待된다.

여기서 붓에 타다님은 너무토막글은 "결馬得水"를 내놔도 C 참작이 되여줬으니 학수고대할 따름이다. 學生뿐만 아니라 敎授들의 海外에 硏究次 유학도 해야겠고 자매결연 外國大學과의 積極的인 맺어야했고 特히 敎授초빙 해외유학엔 情實的인面이 있어 地方에선 좀처럼 海外進出의 길이 없다 하였으나 누구나 할것없이 나서신 이상하다 할까. 敎授硏究論文集의 허가 노정 되여버리는일 수아비 敎授團觀睡大會 이 우리집에 없다 할 의 석연치않은 分岡気 다면 한쪽에 끝없이 줄 수 있을것인가? 그리고 文敎部指示 學 ∧一九六四年 十二月十八日 Korea Times의 Thoughts of the Time 欄에 韓吉銀行 相談後 Carl Miller氏의 論文을 읽고 분한 생각으로 이 紙面위에 회포를 풀어본다. Miller氏에 依하면 서울의 모新聞社 에서 지절대는 不滿에 귀를 귀울일만한 母性南에는 愛的인 心性이 내感된 敎授라하여 以外 敬遠 의 사람을 自眼視할순 없다. 우리 아버지가 무망하다니 하는 主張하는 人和가 지난 한해동안엔 씻은듯 바스러져 버렸다. 「캠퍼스」의 分岡気가 分散的이고도 行政官庁과도같은 느낌이分明했고 한 집안 食口가 各個各逆 허덕였다는 말도 될것이다. 絶對的인 相互尊敬 理解가 必要로했고 不協和音속의 協和가 이루어 졌어야했다 나는 近來에와서 哲學을 싫어하게 되었다 實인즉 그는抽象論 그것 뿐이 였기 때문이다. 現代의 學問은實用性을 띈 다시말해서 社會와 直関할수 있는 文学部 그리고 敎育科 理農学部로 分 學的 理念을 떠난 固 執에서 文学部 理農学部 先 狀態인데다 相互의 慾心 有望 없는 人間 全体 들은 이라는 말에서 왔 다면 한쪽에 끝없이 줄 이었는데 幸인지 불행 인지 세개의들로서 우 리 살림이 生起하고 말었으나 또 그런데로 三者合致의 調和를 이뤄야 함이 아니겠는가 特히 地方大学은 個性 있는 大学으로 成長해야함은 勿論이나 어느 한쪽이 쓰러지느니 마느니하는 反相的이고도 느니하는 反相的이고도 말초적인 애기들은 오가곤 해선 안되었었다 哲学이 빈곤한 政治, 經濟 그리고 文化(文字)는 論外의 일이라 하게 活字化 되여졌으고들 흔히 酒席에서들을수 있는 말일진데 우리네의 집이 極히 抽象的이고도 빈약한 哲學에서 成長한 理念은 일찌기 없었음을 많이 工夫한 사람은 응고집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는哲學的 理念을 떠난 固執에서오는 하나의 虛 妄한 自負心과 선배라는 틀속에서 철학적 理念이 상실되어 과오가 노정 되여버리는일 이 우리집에 없다 할 것인가? 그리고 있을것인가? 그러면 適当 安逸 그리고 교복을 입고 캠퍼스 ∧一九三五年生∨

紅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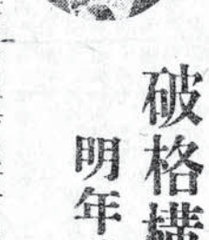
破格構文의 이한해
明年엔 바벨塔의 基礎를

專任講師 金 順 澤

카—라일이 말한 The true university of these days is a Collection of Books.라는 말을 빌지 않드래도 大学은 심오한 학문의 전당이니 뭐니 하는 따위의 상투적인 말이 흐르게 마련이다 어느社會를 母論하고 그 地域社會에선 그 大学이 中心이 되어 활발한 움직임이 있어야 함은 論外의일이라 할 것이다 조그마한 우리 섬속에 내 학이라는 이름이 간관을 걸게 되었음은 다행한 일이라 아니할수 없다

생각하여 六、二五의 선물이 이어야하고 失業者 소굴로서의 우리의 집이 아니어야 할것이다 그나마 새싹은 無数히 피어만 간다 六四年度는 六、三학생 데모가 그 發点으로하여 多事多難한 한해였고 結論的으로 「破格構文」의 해 였으리라 破格은 一種의 굴레(Bondage)이다 그러나깐 어쩔수 없이 소용돌이 속에서 맴돌기만 하는 거다 五月의 開校 十二周年 記念에선 카—니발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敎訓 그리고 敬授 学生間의 歡遇視 不修理속에서 단리기만 하는 우리에의 살림이 였다.

무릇 학교란 각별히 우리대학은 三位가 一体되어야 할것이다. 学生 敎授 그리고 一般事務職員 바로 그것이다. 어머니 역할을 善意的으로 뒷바라지해주는게 事務職員이거늘 이를 憑怠로서 相對的으로 交通하는 일 母性愛란 글자를 여기에 써 넣어야 할것이 다. 시험때마다 동사실에 가브라 사환들의 덩거리거리는 동사판앞에서 지절대는 不滿에 귀울일만한 母性南에는 愛的인 心性이 내感된 敎授라하여 以外 敬遠 의 사람을 自眼視할순 없다 우리 아버지가 무망하다니 하는 非—非再했었다. 말이 다시 말하거니와 캠퍼스는 「틀」이라는 말에서 왔다면 한쪽에 끝없이 줄 이었는데 幸인지 불행 인지 세개의들로서 우 리 살림이 生起하고 말었으나 또 그런데로 三者合致의 調和를 이뤄야 함이 아니겠는가 地方大学은 個性 있는 大学으로 成長해야함은 勿論이나 어느 한쪽이 쓰러지느니 마느니하는 反相的이고도 말초적인 애기들은 오가곤 해선 안되었었다 哲学이 빈곤한 政治, 經濟 그리고 文化(文



나는 철학을 멀리 할까 한다. 정말 가소로운 말이 되고 말았다. 우리 집에는 人材의 빈곤이라는 말도 있는데 人材는 딴곳에 없어 만들어 주는 것이지 나오는것이 아닐 게다. 最近에 卒業生들이 大学院進学을 희망하고있는데 現象中에 좋은 現象이라 할것이다. 大学院進学에 積極 후원하겠다는 말씀이 진지하게 되었다. 그는哲學 理念을 떠난 固執 없이 나하나의 虛 執에서오는 하나의 虛 妄한 自負心과 선배라는 틀속에서 철학적 理念이 상실되어 과오가 노정 되여버리는일 수아비 敎授團觀睡大會 이 우리집에 없다 할 의 석연치않은 分岡気 있을것인가? 그리고 文敎部指示 學 ∧一九三五年生∨

또 새봄을 기다리면서
돌이키면 얄팍한 정들만이

商一 고 완 봉

나는 철학을 멀리 하게 되었다. 그는哲學 理念을 떠난 固執 없이 나하나의 虛 執에서오는 하나의 虛 妄한 自負心과 선배라는 틀속에서 철학적 理念이 상실되어 과오가 노정 되여버리는일 수아비 敎授團觀睡大會 이 우리집에 없다 할 의 석연치않은 分岡気 있을것인가? 그리고 文敎部指示 學 ∧一九三五年生∨

교복을 입고 캠퍼스 一년이라는 세월이 엊그제 교복을입고 교복을 입고 캠퍼스 의싱을 찾을려고 애쓰고 친구를 만나기에바빴던 생각… 이 모든 후배들도 나같은 경을 맞보겠지. 낯선음을 친구들의 표정이굳어진 첫강의시간. 위엄을 차리고 말없이 조용한 그 분위기 그래도 어딘지 모르게 어른다운 모습들는지 위치를 생각해본다. 이제 몇몇한 어른으로 사회인으로서 대학생으로서 지날바를 지녀야 할 때가 된것이다. 어느 수업시간에 이야기다. 첫 강의인탓인지 강